



“꿀찌하면 어때요 좋아하는 선수 응원할래요”

프로야구 KIA의 열성팬들은 요즘 사는 재미가 없다. 응원하는 팀이 탈꼴찌마저 어려운 상황이니 맥이 빠진다. 그래도 경기가 있는 날이면 야구장을 찾고, TV 앞에 앉아 응원을 한다.

다만 응원 방법이 좀 달라졌을 뿐이다. 승부에 집착하기 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선수를 응원한다.

지난 23일 KIA-한화전에서 열린 광주구장에서 만난 서민우(30·광주시 동구 동명동)씨는 “승패에는 관심이 없다. 평소 멋진 플레이를 펼쳐주는 이현곤 선수를 응원하러 왔다”고 말했다.

올 시즌 내내 꿀찌를 맴돌고 있는 KIA 팬들의 응원문화가 팀 중심에서 선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시즌 초반엔 관중석 곳곳에 ‘V10 KIA 타이거즈’ 등 팀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널려 있었지만, 후반기 들어선 특정선수들의 화이팅을 염원하는 각종 문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팬들의 선수에 대한 응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선수 개개인의 생일이나 등판날짜 등에 맞춰 이벤트를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26일 대구 삼성전편 경기 전 대구구장 로비에서 23번째 생일을 맞은 이용규의 생일축하 파티가 열렸다.

이용규의 팬카페 회원들이 마련했는데, 이용규는 꼬갈모자를 쓰고, 케이크를 자르고, 생일축하 노래를 들었다. 최근 6경기 타율이 0.409에 이르는 이용규의 활약에 대한 팬들의 달려왔다.

이날 KIA 선발투수였던 윤석민의 팬카페 회원들도 선수단에 참살뿔을 돌렸다. 타자들의 방망이에 붙어 참살뿔처럼 잘 찌작찰 붙어 윤석민의 선발승을 도와 달라라는 의미를 담았다.

올 시즌 부진을 면치 못하는 스타 선수를 격려하는 팬들의 응원문화도 이색적이다.

지난 14일 KIA팬들은 모 스포츠 신문 1면 하단에 이종범의 부활을 염원하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게재했다.

KIA 팬들 응원문화 선수 중심으로 바뀌어 개인 생일·등판날짜 맞춰 이벤트 마련도



지난 18일 광주구장에서 열린 KIA와 SK 경기에서 KIA팬들이 타율과 안타 부문 단독 1위에 올라있는 이현곤을 응원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추정 광고 가격만도 수백만원대. 팬들은 다음날인 15일엔 37번째 생일을 맞은 이종범에게 케이크와 떡도 선물했다.

또 최근 올해 말 결혼 계획을 밝힌 최희섭의 약혼녀 야사다 아야씨는 지난 21일 갑작편지와 선물로 KIA선수단에 웃음을 선사했다.

야사다 아야씨는 서정환 KIA 감독 앞으로 3장의 편지와 자양강장제 120병을 보냈는데, 편지 서문에 ‘KIA가 지금은 성적이 안 좋지만 앞으로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라는 응원의 글을 남긴 뒤 ‘우리 희섭씨가 내성적이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적응만 하면 잘할 수 있으니 믿어주세요’라고 썼다.

그리곤 ‘희정장은 선수들에게 환병석 주시고 화십씨에게는 두병 주세요’라는 애교섞인 멘트도 덧붙였다.

올 시즌 꿀찌구단으로 추락한 KIA의 체면은 말이 아니지만, 팬들의 사랑은 변함없다.

◇프로야구 중간순위 (27일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62	41	5	0.602	-	2패
2	두산	58	48	2	0.547	5.5	2승
3	삼성	54	48	3	0.529	7.5	1패
4	한화	52	49	2	0.515	9.0	1승
5	LG	50	50	5	0.500	10.5	2승
6	롯데	49	55	3	0.471	13.5	1패
7	현대	45	58	1	0.437	17.0	2패
8	KIA	43	64	1	0.402	21.0	1승

오려라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더욱 깊어지는 듯 하다.

한편 KIA는 사실상 정규시즌 마지막주인 이번주(28일~9월 2일) 두산, 현대와 6연전을 치른다. 모두 양방 광주에서다. 내달 4일부터 우천리그에 들어간다. 28일 KIA는 윤석민을, 두산은 팬들을 선발투수로 예고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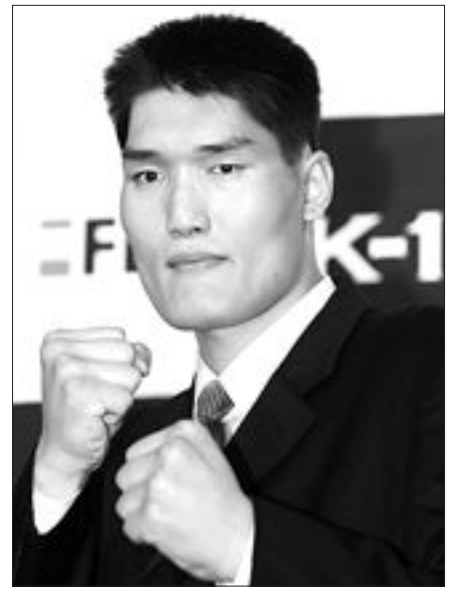
최흥만, 마이티 모에 복수전 치른다



<최흥만>

‘말단 비대증’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테크노 골리앗’ 최흥만(27)이 내달 마이티 모(34·미국)를 상대로 복수전을 치르려 했다. K-1 주최사 FEG는 27일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흥만이 내달 29일 송파구 방이동 을림체육조경기장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개막전 16강 토너먼트’ 대회에서 모와 맞붙는 대진을 공식 발표했다.

다음달 29일 서울서 김영현은 K-1 데뷔전



<김영현>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K-1 대회에서 모에게 강력한 오른쪽 훅 한 방에 2회 KO로 패했던 수모를 6개월 만에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셈. 최흥만은 이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자동 출전권을 따냈다.

최흥만은 “정말 기대하고 있던 경기고 요즘 컨디션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모와 다시 맞붙게 됐는데 반드시 복수하겠다. 잔부상도 전혀 없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2004년 2월 K-1에 데뷔한 모는 187cm에 127kg으로 최흥만(218cm·160kg)에 비해 신체적으로 불리하지만 강력한 훅이 강점으로 올해 유도 출신 김민수(32)와 민속씨름에서 전향한 김경석(26)을 잇따라 KO로 제압, ‘코리아 파이팅 걸러’란 별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K-1 네덜란드 대회에서는 K-1 챔피언 세이 윌트(33)와 슈퍼헤비급 타이틀 매치를 치러 심판 전원일치로 판정패했다. K-1 통산 전적은 14승(8KO)5패.

또 최근 K-1과 계약을 한 민속씨름 전하장사 출신 김영현(31)도 내달 29일 번외경인 슈퍼파이트 경기에 출전해 K-1 데뷔전을 치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김영현은 FEG와 합의 끝에 2년 기간에 옵션 등을 포함, 10억 원 안팎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뷔전 상대는 내주 결장전 예정인 김은 색 장차 차임으로 회견장에 나타난 김영현은 “씨름을 하다가 K-1 진출하게 됐다. 데뷔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짧게 소감을 말했다.

이승엽, 선두경쟁 힘 보탠다

3경기 연속 2안타 타율 0.270 회복

3경기 연속 2안타를 때리고 타율 0.270대를 회복한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여세를 몰아 소속팀의 순위경쟁에 큰 힘을 보탬 주 주목된다.

왼쪽 어깨, 왼손 엄지 부상으로 시즌 내내 타율 0.250~260대에서 등락을 반복했던 이승엽은 최근 상승세로 타율 0.270에 복귀했다.

인터리그 패이던 6월2일 이후 근 석 달 만이다.

공교롭게도 관절염을 앓고 있는 엄지를 보호하려고 찢던 림을 벗어 던지고 배수의 진을 친 지난 주부터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주니치 드래곤스, 히로시마 도요 카프를 상대로 치른 6경기에서 이승엽은 타율 0.348(23타수8안타)를 때리고 홈런 2방에 5타점을 올렸다.

17일 야쿠르트 스왈로스전에서 12일 만에 타점을 추가하는 등 지독한 타점 거름에 시달렸던 것과 비교하면 페이스가 한층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특히 직선타성으로 날아가는 장타가 눈에 띈다. 그동안 팽볼성 타구가 많았으나 홈런

스윙에서 나오는 라인러스트 타구로 ‘질’이 달라졌다.

23일 주니치전에서 에이스 가와카미 겐신을 상대로 145m짜리 초대형 홈런을 터트린 뒤 “올해 가장 좋은 스윙이었다”고 만족했을 정도로 자신감을 되찾았다.

상대 타율 0.282와 0.328로 강한 야쿠르트와 오키야마 베이스타스를 상대로 5연전을 치르는 금주도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만 하다.

요미우리는 롯데자 다니 요시토모(0.329)가 센트럴리그 리그 타격 3위에 오른 것을 필두로 오가사와라 미치히로(0.314), 다카하시 요시노부(0.301), 아베 신노스케(0.299), 니오가 도모히로(0.294) 등 상위 타선 5인방이 타격 15위 안에 올라 있다.

26일 히로시마전에서 20안타를 퍼부어 14-1로 대승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요미우리의 공격 짜임새는 주니치나 한신 타이거스의 그것에 비해 떨어지나 개개인의 파워가 월등해 단순 폭발력은 경쟁팀을 압도한다.

5인방이 맹활약 하고 있는 상황에서 5~7번에 포진한 이승엽에게 타점 찬스는 더욱 물리개 돼 있다. 안타에 집중한다면 요미우리의 득점력이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여자배구 GS칼텍스·KT&G 브라질 대표출신 용병 영입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와 KT&G가 나란히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의 수준급 외국 선수 영입했다.

GS칼텍스는 27일 브라질 대표로 9년 간 활약했던 페르토 하께우 다 실바(29·특별명 하께우·왼쪽)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키 191cm, 몸무게 74kg으로 체격이 좋은 하께우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브라질 대표팀에서 뛰었다.

KT&G도 브라질 청소년 대표로 활약했던 페르토나 배티 알비스(22·특별명 페르토나·오른쪽)와 계약을 맺었다. 페르토나는 키 190cm, 몸무게 76kg으로 특유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격력과 강한 서브가 돋보인다.

신선채널 (28일)

- ▶2007 메이저리그 <뉴욕Y: 디트로이트> (07:55·Xsports)
- ▶제5회 미주총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

전 (13:00·KBS N SPORTS)

- ▶2007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야쿠르트> (17:50·SBS스포츠)
- ▶2007 프로야구 <가: 두산> (18:30·MBC ESPN)
- ▶제11회 IAAF 월드컵 겸미인십 육상선수권 (18:50·Xsports)
-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2:00·KBS N SPORTS>

KBS N SPORTS (29일)

- ▶2007 US OPEN 테니스 남녀단식 1R (00:00·Xsports)
- ▶2007 메이저리그 <보스턴: 뉴욕Y> (07:55·Xsports)

용봉구(주)금보부동산

☎(0430-6100) 016-610-9444 (문충초교입구)

- 북구 우산동 원동(구동기슈) 99㎡(171.9坪)·주차장 10면·연면적·580.00㎡(171.9坪)·전세 2007년 9월 연세4.0%·보증금 4,000만원
- 광산구 칠곡동 원동(하남동) 99㎡(171.9坪)·주차장 10면·연면적·580.00㎡(171.9坪)·전세 2007년 9월 연세4.0%·보증금 4,000만원
- 전대후면(최고상권) 118.1㎡(35.3坪)·연면적·330㎡(118.1坪)·4층전세·최근 리모델링 완료·매가·7,000만원
- 전대후면 고시빌 149.9㎡(45.0坪)·연면적·320.6㎡(97.0坪)·고시빌 27층·월 720만원·수입액 연 2007년 9월 연세4.0%·매가·5,500만원
- 북구 우산동(무동도서관 부근) 281.4㎡(84.7坪)·연면적·528.9㎡(160.9坪)·4층전세·매가·3,000만원
- 북구 양산동 390.5㎡(117.0坪)·연면적·148.7㎡(45.0坪)·매가·1,980만원
- 서구 화정동(중공 아파트 부근) 208㎡(63.0坪)·부동·12실·리거·매가·1,041만원
- 북구 용봉동(구 천일빌딩 부근) 338.4㎡(102.0坪)·매·평당 270만원
- 전남 담양군 봉산면 관리지역 (2차신도로제한) 5.604㎡(1.680坪)·매·평당 16만원
- 전남 담양군 고서면 분향리 3.836㎡(11.60坪)·경·981㎡(299.0坪)·매·평당 350만원
- 전남 장성군 동화면 관리지역 (도로제한) 1,322㎡(402.0坪)·매·평당 9만 원·유실수 대정기 견목허가 가능

LC타워(주) 첨단지구 LC타워

☎(0702-8004, 010-7154-6986)

- 최저 매매 가격
- 최저 임대 가격
- 최저 분양 가격
- 최저 분양 가격
- 최저 분양 가격
- 최저 분양 가격
- 최저 분양 가격
- 최저 분양 가격
- 최저 분양 가격
- 최저 분양 가격

일가공인중개사

☎(04234-8216) 011-608-0806 (광주중구 북부)

- 상가건물 매매: 중앙동 75평 9천여 원, 700㎡ 1억 2천여 원, 1,000㎡ 1억 5천여 원, 1,200㎡ 2억 1천여 원, 1,500㎡ 3억 1천여 원, 1,800㎡ 4억 1천여 원, 2,000㎡ 5억 1천여 원, 2,500㎡ 6억 1천여 원, 3,000㎡ 7억 1천여 원, 3,500㎡ 8억 1천여 원, 4,000㎡ 9억 1천여 원, 4,500㎡ 1억 1천여 원, 5,000㎡ 1억 2천여 원, 5,500㎡ 1억 3천여 원, 6,000㎡ 1억 4천여 원, 6,500㎡ 1억 5천여 원, 7,000㎡ 1억 6천여 원, 7,500㎡ 1억 7천여 원, 8,000㎡ 1억 8천여 원, 8,500㎡ 1억 9천여 원, 9,000㎡ 2억 1천여 원, 9,500㎡ 2억 2천여 원, 10,000㎡ 2억 3천여 원, 10,500㎡ 2억 4천여 원, 11,000㎡ 2억 5천여 원, 11,500㎡ 2억 6천여 원, 12,000㎡ 2억 7천여 원, 12,500㎡ 2억 8천여 원, 13,000㎡ 2억 9천여 원, 13,500㎡ 3억 1천여 원, 14,000㎡ 3억 2천여 원, 14,500㎡ 3억 3천여 원, 15,000㎡ 3억 4천여 원, 15,500㎡ 3억 5천여 원, 16,000㎡ 3억 6천여 원, 16,500㎡ 3억 7천여 원, 17,000㎡ 3억 8천여 원, 17,500㎡ 3억 9천여 원, 18,000㎡ 4억 1천여 원, 18,500㎡ 4억 2천여 원, 19,000㎡ 4억 3천여 원, 19,500㎡ 4억 4천여 원, 20,000㎡ 4억 5천여 원, 20,500㎡ 4억 6천여 원, 21,000㎡ 4억 7천여 원, 21,500㎡ 4억 8천여 원, 22,000㎡ 4억 9천여 원, 22,500㎡ 5억 1천여 원, 23,000㎡ 5억 2천여 원, 23,500㎡ 5억 3천여 원, 24,000㎡ 5억 4천여 원, 24,500㎡ 5억 5천여 원, 25,000㎡ 5억 6천여 원, 25,500㎡ 5억 7천여 원, 26,000㎡ 5억 8천여 원, 26,500㎡ 5억 9천여 원, 27,000㎡ 6억 1천여 원, 27,500㎡ 6억 2천여 원, 28,000㎡ 6억 3천여 원, 28,500㎡ 6억 4천여 원, 29,000㎡ 6억 5천여 원, 29,500㎡ 6억 6천여 원, 30,000㎡ 6억 7천여 원, 30,500㎡ 6억 8천여 원, 31,000㎡ 6억 9천여 원, 31,500㎡ 7억 1천여 원, 32,000㎡ 7억 2천여 원, 32,500㎡ 7억 3천여 원, 33,000㎡ 7억 4천여 원, 33,500㎡ 7억 5천여 원, 34,000㎡ 7억 6천여 원, 34,500㎡ 7억 7천여 원, 35,000㎡ 7억 8천여 원, 35,500㎡ 7억 9천여 원, 36,000㎡ 8억 1천여 원, 36,500㎡ 8억 2천여 원, 37,000㎡ 8억 3천여 원, 37,500㎡ 8억 4천여 원, 38,000㎡ 8억 5천여 원, 38,500㎡ 8억 6천여 원, 39,000㎡ 8억 7천여 원, 39,500㎡ 8억 8천여 원, 40,000㎡ 8억 9천여 원, 40,500㎡ 9억 1천여 원, 41,000㎡ 9억 2천여 원, 41,500㎡ 9억 3천여 원, 42,000㎡ 9억 4천여 원, 42,500㎡ 9억 5천여 원, 43,000㎡ 9억 6천여 원, 43,500㎡ 9억 7천여 원, 44,000㎡ 9억 8천여 원, 44,500㎡ 9억 9천여 원, 45,000㎡ 10억 1천여 원, 45,500㎡ 10억 2천여 원, 46,000㎡ 10억 3천여 원, 46,500㎡ 10억 4천여 원, 47,000㎡ 10억 5천여 원, 47,500㎡ 10억 6천여 원, 48,000㎡ 10억 7천여 원, 48,500㎡ 10억 8천여 원, 49,000㎡ 10억 9천여 원, 49,500㎡ 11억 1천여 원, 50,000㎡ 11억 2천여 원, 50,500㎡ 11억 3천여 원, 51,000㎡ 11억 4천여 원, 51,500㎡ 11억 5천여 원, 52,000㎡ 11억 6천여 원, 52,500㎡ 11억 7천여 원, 53,000㎡ 11억 8천여 원, 53,500㎡ 11억 9천여 원, 54,000㎡ 12억 1천여 원, 54,500㎡ 12억 2천여 원, 55,000㎡ 12억 3천여 원, 55,500㎡ 12억 4천여 원, 56,000㎡ 12억 5천여 원, 56,500㎡ 12억 6천여 원, 57,000㎡ 12억 7천여 원, 57,500㎡ 12억 8천여 원, 58,000㎡ 12억 9천여 원, 58,500㎡ 13억 1천여 원, 59,000㎡ 13억 2천여 원, 59,500㎡ 13억 3천여 원, 60,000㎡ 13억 4천여 원, 60,500㎡ 13억 5천여 원, 61,000㎡ 13억 6천여 원, 61,500㎡ 13억 7천여 원, 62,000㎡ 13억 8천여 원, 62,500㎡ 13억 9천여 원, 63,000㎡ 14억 1천여 원, 63,500㎡ 14억 2천여 원, 64,000㎡ 14억 3천여 원, 64,500㎡ 14억 4천여 원, 65,000㎡ 14억 5천여 원, 65,500㎡ 14억 6천여 원, 66,000㎡ 14억 7천여 원, 66,500㎡ 14억 8천여 원, 67,000㎡ 14억 9천여 원, 67,500㎡ 15억 1천여 원, 68,000㎡ 15억 2천여 원, 68,500㎡ 15억 3천여 원, 69,000㎡ 15억 4천여 원, 69,500㎡ 15억 5천여 원, 70,000㎡ 15억 6천여 원, 70,500㎡ 15억 7천여 원, 71,000㎡ 15억 8천여 원, 71,500㎡ 15억 9천여 원, 72,000㎡ 16억 1천여 원, 72,500㎡ 16억 2천여 원, 73,000㎡ 16억 3천여 원, 73,500㎡ 16억 4천여 원, 74,000㎡ 16억 5천여 원, 74,500㎡ 16억 6천여 원, 75,000㎡ 16억 7천여 원, 75,500㎡ 16억 8천여 원, 76,000㎡ 16억 9천여 원, 76,500㎡ 17억 1천여 원, 77,000㎡ 17억 2천여 원, 77,500㎡ 17억 3천여 원, 78,000㎡ 17억 4천여 원, 78,500㎡ 17억 5천여 원, 79,000㎡ 17억 6천여 원, 79,500㎡ 17억 7천여 원, 80,000㎡ 17억 8천여 원, 80,500㎡ 17억 9천여 원, 81,000㎡ 18억 1천여 원, 81,500㎡ 18억 2천여 원, 82,000㎡ 18억 3천여 원, 82,500㎡ 18억 4천여 원, 83,000㎡ 18억 5천여 원, 83,500㎡ 18억 6천여 원, 84,000㎡ 18억 7천여 원, 84,500㎡ 18억 8천여 원, 85,000㎡ 18억 9천여 원, 85,500㎡ 19억 1천여 원, 86,000㎡ 19억 2천여 원, 86,500㎡ 19억 3천여 원, 87,000㎡ 19억 4천여 원, 87,500㎡ 19억 5천여 원, 88,000㎡ 19억 6천여 원, 88,500㎡ 19억 7천여 원, 89,000㎡ 19억 8천여 원, 89,500㎡ 19억 9천여 원, 90,000㎡ 20억 1천여 원, 90,500㎡ 20억 2천여 원, 91,000㎡ 20억 3천여 원, 91,500㎡ 20억 4천여 원, 92,000㎡ 20억 5천여 원, 92,500㎡ 20억 6천여 원, 93,000㎡ 20억 7천여 원, 93,500㎡ 20억 8천여 원, 94,000㎡ 20억 9천여 원, 94,500㎡ 21억 1천여 원, 95,000㎡ 21억 2천여 원, 95,500㎡ 21억 3천여 원, 96,000㎡ 21억 4천여 원, 96,500㎡ 21억 5천여 원, 97,000㎡ 21억 6천여 원, 97,500㎡ 21억 7천여 원, 98,000㎡ 21억 8천여 원, 98,500㎡ 21억 9천여 원, 99,000㎡ 22억 1천여 원, 99,500㎡ 22억 2천여 원, 100,000㎡ 22억 3천여 원, 100,500㎡ 22억 4천여 원, 101,000㎡ 22억 5천여 원, 101,500㎡ 22억 6천여 원, 102,000㎡ 22억 7천여 원, 102,500㎡ 22억 8천여 원, 103,000㎡ 22억 9천여 원, 103,500㎡ 23억 1천여 원, 104,000㎡ 23억 2천여 원, 104,500㎡ 23억 3천여 원, 105,000㎡ 23억 4천여 원, 105,500㎡ 23억 5천여 원, 106,000㎡ 23억 6천여 원, 106,500㎡ 23억 7천여 원, 107,000㎡ 23억 8천여 원, 107,500㎡ 23억 9천여 원, 108,000㎡ 24억 1천여 원, 108,500㎡ 24억 2천여 원, 109,000㎡ 24억 3천여 원, 109,500㎡ 24억 4천여 원, 110,000㎡ 24억 5천여 원, 110,500㎡ 24억 6천여 원, 111,000㎡ 24억 7천여 원, 111,500㎡ 24억 8천여 원, 112,000㎡ 24억 9천여 원, 112,500㎡ 25억 1천여 원, 113,000㎡ 25억 2천여 원, 113,500㎡ 25억 3천여 원, 114,000㎡ 25억 4천여 원, 114,500㎡ 25억 5천여 원, 115,000㎡ 25억 6천여 원, 115,500㎡ 25억 7천여 원, 116,000㎡ 25억 8천여 원, 116,500㎡ 25억 9천여 원, 117,000㎡ 26억 1천여 원, 117,500㎡ 26억 2천여 원, 118,000㎡ 26억 3천여 원, 118,500㎡ 26억 4천여 원, 119,000㎡ 26억 5천여 원, 119,500㎡ 26억 6천여 원, 120,000㎡ 26억 7천여 원, 120,500㎡ 26억 8천여 원, 121,000㎡ 26억 9천여 원, 121,500㎡ 27억 1천여 원, 122,000㎡ 27억 2천여 원, 122,500㎡ 27억 3천여 원, 123,000㎡ 27억 4천여 원, 123,500㎡ 27억 5천여 원, 124,000㎡ 27억 6천여 원, 124,500㎡ 27억 7천여 원, 125,000㎡ 27억 8천여 원, 125,500㎡ 27억 9천여 원, 126,000㎡ 28억 1천여 원, 126,500㎡ 28억 2천여 원, 127,000㎡ 28억 3천여 원, 127,500㎡ 28억 4천여 원, 128,000㎡ 28억 5천여 원, 128,500㎡ 28억 6천여 원, 129,000㎡ 28억 7천여 원, 129,500㎡ 28억 8천여 원, 130,000㎡ 28억 9천여 원, 130,500㎡ 29억 1천여 원, 131,000㎡ 29억 2천여 원, 131,500㎡ 29억 3천여 원, 132,000㎡ 29억 4천여 원, 132,500㎡ 29억 5천여 원, 133,000㎡ 29억 6천여 원, 133,500㎡ 29억 7천여 원, 134,000㎡ 29억 8천여 원, 134,500㎡ 29억 9천여 원, 135,000㎡ 30억 1천여 원, 135,500㎡ 30억 2천여 원, 136,000㎡ 30억 3천여 원, 136,500㎡ 30억 4천여 원, 137,000㎡ 30억 5천여 원, 137,500㎡ 30억 6천여 원, 138,000㎡ 30억 7천여 원, 138,500㎡ 30억 8천여 원, 139,000㎡ 30억 9천여 원, 139,500㎡ 31억 1천여 원, 140,000㎡ 31억 2천여 원, 140,500㎡ 31억 3천여 원, 141,000㎡ 31억 4천여 원, 141,500㎡ 31억 5천여 원, 142,000㎡ 31억 6천여 원, 142,500㎡ 31억 7천여 원, 143,000㎡ 31억 8천여 원, 143,500㎡ 31억 9천여 원, 144,000㎡ 32억 1천여 원, 144,500㎡ 32억 2천여 원, 145,000㎡ 32억 3천여 원, 145,500㎡ 32억 4천여 원, 146,000㎡ 32억 5천여 원, 146,500㎡ 32억 6천여 원, 147,000㎡ 32억 7천여 원, 147,500㎡ 32억 8천여 원, 148,000㎡ 32억 9천여 원, 148,500㎡ 33억 1천여 원, 149,000㎡ 33억 2천여 원, 149,500㎡ 33억 3천여 원, 150,000㎡ 33억 4천여 원, 150,500㎡ 33억 5천여 원, 151,000㎡ 33억 6천여 원, 151,500㎡ 33억 7천여 원, 152,000㎡ 33억 8천여 원, 152,500㎡ 33억 9천여 원, 153,000㎡ 34억 1천여 원, 153,500㎡ 34억 2천여 원, 154,000㎡ 34억 3천여 원, 154,500㎡ 34억 4천여 원, 155,000㎡ 34억 5천여 원, 155,500㎡ 34억 6천여 원, 156,000㎡ 34억 7천여 원, 156,500㎡ 34억 8천여 원, 157,000㎡ 34억 9천여 원, 157,500㎡ 35억 1천여 원, 158,000㎡ 35억 2천여 원, 158,500㎡ 35억 3천여 원, 159,000㎡ 35억 4천여 원, 159,500㎡ 35억 5천여 원, 160,000㎡ 35억 6천여 원, 160,500㎡ 35억 7천여 원, 161,000㎡ 35억 8천여 원, 161,500㎡ 35억 9천여 원, 162,000㎡ 36억 1천여 원, 162,500㎡ 36억 2천여 원, 163,000㎡ 36억 3천여 원, 163,500㎡ 36억 4천여 원, 164,000㎡ 36억 5천여 원, 164,500㎡ 36억 6천여 원, 165,000㎡ 36억 7천여 원, 165,500㎡ 36억 8천여 원, 166,000㎡ 36억 9천여 원, 166,500㎡ 37억 1천여 원, 167,000㎡ 37억 2천여 원, 167,500㎡ 37억 3천여 원, 168,000㎡ 37억 4천여 원, 168,500㎡ 37억 5천여 원, 169,000㎡ 37억 6천여 원, 169,500㎡ 37억 7천여 원, 170,000㎡ 37억 8천여 원, 170,500㎡ 37억 9천여 원, 171,000㎡ 38억 1천여 원, 171,500㎡ 38억 2천여 원, 172,000㎡ 38억 3천여 원, 172,500㎡ 38억 4천여 원, 173,000㎡ 38억 5천여 원, 173,500㎡ 38억 6천여 원, 174,000㎡ 38억 7천여 원, 174,500㎡ 38억 8천여 원, 175,000㎡ 38억 9천여 원, 175,500㎡ 39억 1천여 원, 176,000㎡ 39억 2천여 원, 176,500㎡ 39억 3천여 원, 177,000㎡ 39억 4천여 원, 177,500㎡ 39억 5천여 원, 178,000㎡ 39억 6천여 원, 178,500㎡ 39억 7천여 원, 179,000㎡ 39억 8천여 원, 179,500㎡ 39억 9천여 원, 180,000㎡ 40억 1천여 원, 180,500㎡ 40억 2천여 원, 181,000㎡ 40억 3천여 원, 181,5